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내일 개막

[우승]

강릉고등학교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19일 개막한다. 지난해에는 최재호 감독이 이끈 강릉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동아DB

전통의 '황금사자기' 주인은 누구냐

전국 50개 고교 참가...12일간 열전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전국 최강의 팀은 어디일까요?

올해로 76회를 맞이한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우승팀 강릉고를 비롯해 전국 14개 권역별 전반기 주말리그를 거친 50개 고교 참가할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관중입장이 올해는 전면 재개돼 현장에서 직접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교야구만의 때 묻지 않은 열정과 패기를 생생히 느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황금사자기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기록 및 정보는 물론 출전선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한층 더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SPOTV가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구팬들과 참가 고교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성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4면

●기간 : 5월 19일(목)~30일(월)

●장소 : 서울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예선 일부)

●티켓판매 : 현장 판매 및 인터파크 (www.interpark.com/1544-1555) 예매

-성인 1만 원, 학생(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우대) 4000원

●인스타그램 : @goldlion\_baseball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KBS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협찬 : SK telecom 방송 : SPOTV

이승엽도. 이대호도 밟지 못한 최초의 홈런기록 쓴다

박 ‘위대한 도전’ 최

(박병호)

(최정)

KT 박병호 9시즌 연속 20홈런 가시권

홈런 페이스 좋아...8개만 넘기면 역사

SSG 최정 17시즌 연속 10홈런 도전장

현역 ‘통산 홈런왕’ 자존심 지키지 관심

2022 신인왕

KBO 리그

홈런타자로 세울 수 있는 최초의 기록, 먼저 다가설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

국내 홈런타자 경쟁을 꾸준히 이끌어온 두 오른손 거포가 2022시즌에는 의미 있는 연속 홈런 기록에 도전 중이다. 주인공은 16일까지 올 시즌 홈런 부문 단독선두(12개)인 KT 위즈 박병호(36), 현역 개인통산 홈런 1위(406개)인 SSG 랜더스 최정(35)이다.

박병호와 최정은 2012년부터 KBO리그 홈런 부문 타이틀을 거의 양분해왔다. 박병호는 2012, 2013, 2014, 2015, 2019년 홈런왕에 올랐고, 최정은 2016, 2017, 2021년 홈런 타이틀을 차지했다. 올해도 박병호가 홈런 레이스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두 거포는 어느덧 3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힘’에서만큼은 여전히 다른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꾸준히 대포를 쏘아 올렸던 만큼 두 타자는 올해 남다른 의미의 기록에 도전한다. 바로 연속시즌 홈런 기록이다. ‘국민타자’ 이승엽(은퇴)도,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도 밟아보지 못한 KBO리그 최초의 기록들이다.

먼저 박병호는 9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대기록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박병호는 2012시즌부터 2021시즌까지 KBO리그에서 뛴 기간에는 매해 20개 이상의 아치를 그렸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2016, 2017시즌을 제외하곤 늘 KBO리그 홈런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병호는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20홈런을 채우며 8시즌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은 바 있는데, 이는 KBO리그 역대 2번째 기록이다. 최초의 기록은 이승엽(1997~2012년·해외진출기간 8년 제외). 그러나 이승엽은 KBO리그에 복귀한 뒤 2번째 시즌이었던 2013년에는 13홈런에 그쳐 9시즌 연속 20홈런에는 실패했다.

최정은 17시즌 연속 10홈런이라는 또 하나의 최초 기록에 도전한다. 최정은 2006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터트려왔는데, 지난해 이미 KBO리그 최초로 16시즌 연속 10홈런을 달성하며 장종훈(1988~2002년)과 양준혁(1993~2007년)의 15시즌 연속 홈런 기록을 뛰어넘었다. 올해부터는 자기 자신과 계속되는 싸움이다. 현재 3홈런을 치고 있다.

안타도 아닌 홈런으로 꾸준함의 상징을 만들어온 두 거포, 자신들의 가치를 다시금 높이는 연속 홈런 기록이라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도 남다르다. 두 거포를 기다리고 있는 최초의 기록 중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완성될까.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전국 노래자랑

방송인 송해가 건강상의 이유로 34년 동안 진행한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의 하차를 고민 중이다.

사진제공 | KBS

34년 외쳐 온 “전국, 노래자랑!”

송해 “이젠 그만 둘 때가” 고사

“건강 자신 없어” 제작진에 하차 뜻 전해

KBS “확정 아니지만 선생님 의견 존중”

“이제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95)가 1988년 5월부터 34년 간 진행해 온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건강상 이유로 하차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매주 일요일 낮 우렁찬 목소리로 “전국~노래자랑!”을 외쳤던 ‘국민MC’의 은퇴 가능성에 시청자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7일 KBS에 따르면 송해는 건강에 이상을 느껴 현재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고령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올해 1월 한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확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최근 제작진에게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를 돌며 제작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잦아 고령의 몸으로 체력적 부담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제작진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해오다 다음 달 제작을 재개기로 하면서 하차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작진은 하차 여부와 함께 ‘전국노래자랑’의 후임 진행자에 대해서도 송해와 논의 중이다. 앞서 그가 방송을 통해 후임자로 꼽은 방송인 이상운(78), 이상벽(75)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하차를 확정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송해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해에게 ‘전국노래자랑’은 ‘국민MC’로 발돋움하게 한 발판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 만큼 프로그램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 지난해 11월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통해 “이 프로그램으로 3세부터 150세까지 1000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를 만났다”며 “내게는 운명과도 같다”고 돌아봤다.

“지각 한 번 하지 않는” 성실함으로도 방송가 후배들의 모범이 됐다. 송해는 2020년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철저한 리허설”을 방송 철칙으로 꼽으며 “진행 30여 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올해 1월 ‘최고령 TV 음악 댄서쇼 쇼 진행자’ 부문으로 그의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를 추진해 현재 심사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를 “큰형님”으로 따랐던 이상운은 이날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후임 등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체중이 많이 빠지는 등 송해의 건강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송해가 방송가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국보”라면서 “마이크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879 Golf

☎ 양재피팅센터 1855-1879 ☎ 부산피팅센터 070-4603-1879

1879 GBT

“

병커탈출 SOS 솔루션

1879 55 병커탈출 전용 유틸리티

”

QR Code

1879golf.com

1879

방문 피팅카 서비스 운영

1879

골프 선수